

“「知的 소유권 時代」에 대응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韓國
저작권협회·韓國 저작자인
협회·韓國 저작권협회들이
저작권 관리단체가 있었으나
연구단체가 아닌 이 단체
의 성격이었다.

면서 「지적소유권 분야는 국
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으며 최근 전개되는 일련
의 시장개방 압력에서도 주
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연구를
동아, 미합고 국제정보나
자료교환의 부족으로 변화
에 대처하지 못했던 사정
을 감안, 앞으로 체계적
인 정보교환과 연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

黃迪仁씨(서울대교수)와 장수길·金洞玄씨 등 변호사들 50여명은 25일 서울世宗路 변호사회관에서 저작권법학 학술단체인 「韓國知的所有權學會」를 창립했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에 대한 학술연구 단체가 만들어진 셈이다.

美國의 간접한 요구에 의해 국제재정권수학기구에의 가입과
자작률보통화에 대한 국제적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또
표·인정·설명·인증제를 통해 지적소유에 대한 보호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學術연구단체 「知的所有權학회」 출범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원들(원내는 회장으로 선출된 宋相現씨).

市場개방압력 따른 이익보호가 목적

宋씨는 일정으로 소프트웨어·물질 투학증의 문제로 복제적으로 대두하게 될 때 학술적 연구의 축적이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末씨는 부봉의 외국의 정부 소유권에 法科대학에서 지적 대로 법학자로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내에는 이같은 강좌가 없을 뿐 아니라 전문가도 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같은 일상적인 절차를 하다고 지

는『금리나라가 지난 62년
부터 허등에 할자루자를 하면서 특
대한 슬기로운 상
당히 높아졌으나 이처럼 실
무지식이 이를 해보지 못했었다.
다』고 예를 들면서 이튼
화된 지식을 갖출때
로의 더 많은 개방에서
제적인 이유를 얻을수
다고 말했다.
있 실